

회사 위해 헌신한 김 부장 '인생 2모작' 도와 드릴게요

은퇴 후 生을 말하다

<제1부> 은퇴자 매년 80만명 시대

③ 기업 은퇴교육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두고 '퇴준생'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겼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전국의 직장인 28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퇴준생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가까이(46.1%)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퇴준생을 자처하면서도 섣불리 직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를 떠나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일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52만원으로 경제활동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야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에 밀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업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미미하지만 은퇴자의 '인생 2모작'을 돕는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광주경력컨설팅센터' (이하 센터)가 대표적이다. 센터는 퇴직자와 재직자의 은퇴 후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퇴직자·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나눈다.

먼저 센터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이뤄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자는 전직교육, 창업교육,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창업 정보 등을 얻는다. 또한 경영지도사, 품질지도사, 직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광주경력컨설팅센터' 퇴직자·재직자 교육
기아차 광주공장 'K+ 라이프 교육 프로그램' 55~60세 3단계 진행
광주은행, 명퇴자 1년 근무 연장 등 은퇴자 노후 대비 지원 노력

업상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임직원을 구인기업과 직업 연결해 주는 잡매칭도 은퇴자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센터는 임직원 스스로 생애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4가지의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45세와 50세 때 정년에 대비하기 위한 생애설계과정과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재무컨설팅 과정, 임직원 역량 향상 과정을 들으며 직접 퇴직 후 생애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나간다. 삼성경력컨설팅센터는 광주 뿐만 아니라 서울, 수원, 기흥, 구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역시 퇴직자를 지원하는 'K+ 라이프 교육 프로그램' (이하 K+ 라이프)을 운영하고 있다. 'K+ 라이프'는 기아차가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제2의 생애설계를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삶이 기아(K)와 함께 했다면, 두 번째 삶은 플러스(+)'가 되도록 디자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퇴직준비를 돕는 K+ 라이프 교육은 연령별로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은 만 55세를 대상으로 한 'K5 과정' (2일)이다. 계획 단계인 K5 과정은 자기진단을 통한 진로 모색, 퇴직 준비 인식, K+ 라이프 계획 수립으로 구성된다.

직장인 46% '퇴준생'.. 마음은 이미 퇴사

* 남녀 직장인 282명 조사 / 자료제공: 잡코리아X알바몬



이러 만 58세가 되면 'K2 과정' (3일)이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계인 K2 과정은 직업·정서·재무·신체·관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준비, 퇴직 준비 중간 점검, 퇴직 2년 전(D-2) 퇴직 계획 수립으로 이뤄져 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대상인 만 60세가 되면 'K 과정' (2일)이 진행된다. K+ 라이프 출발 단계인 K 과정에서는 퇴직 변화관리, 퇴직 최종점검, 동기부여 등의 지도를 받는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1년 정도 근무기간을 연장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종의 재취



업 제도로, 광주은행은 55세 이상 명예퇴직 대상 임직원 중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은퇴 준비를 못했다면 1년 동안 여유를 두고 준비

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든 이 제도는 퇴직자 중 절반 이상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연봉은 개인별로 협상에 따라 계약을 하며 사무보조 등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업무를 배정받아 은퇴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은퇴가 인생 종착지 아냐... 지금이 진짜 ‘내 인생’”

현대차 정년 퇴임 추창근씨 영암 월암마을서 '제2의 인생'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대자동차에서 정년 퇴임하고 시골에서 한옥 짓고 산다는 추창근(66)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그를 만나러 영암에 갈 때만 해도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9일 추씨가 사는 영암군 군서면 월암마을에 들어서던 순간 '이렇게 노후를 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낮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기와집은 추창근·조희애(63) 부부가 6년째 황혼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보금자리다. 약 400평(1322㎡) 땅에 들어선 한옥 집 앞마당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제철 과일·채소를 가꾸는 텃밭이 자리하고 있다.

추씨는 광주에 있는 현대차 지점에서 30년 동안 일했다. 회사로부터 '30년 근속 메달'을 받은 그는 정년을 맞은 환갑 때 20년 넘게 살아온 진월동 아파트를 뒤로 하고 영암 월암마을로 향했다. 지난 1995년에는 '현대차 선임들 모임'이라는 뜻을 지닌 '현대차 광주·전남 현우회'를 만들 정도로 그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 동안 말 그대로 '몸 바쳐' 직장생활을 했다.

30년 도시 생활 허전함만 키워

연고 없는 영암에 한옥마을 조성

벼농사 지으며 연금으로 생계 유지

도예·수영 배우고 詩 쓰기 몰두

“하고 싶은 일 하는게 큰 행복”

그는 귀농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고해성사하듯 설명했다.

“귀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잊을 수 있도록 아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돌아갈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월급 받고 사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딱딱딱 붙어 사는 아파트 생활은 허전함만 키워왔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자는 다짐을 하며 고향인 해남을 제치고 연고 없는 영암에 터를 잡았습니다.”

10여가구가 웅기종기 들어선 한옥마을은 추씨와 역사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6년 전 영암 한옥단지 추진위원장을 맡아 마을의 도로, 하수구, 조정 등 기반시설을 닦는 작업을 진두 지휘했다.

추씨는 4년 전부터 2000평(6611㎡)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다. 처음에는 '농사를 접어야 하나' 할 정도로 큰 시행착오를 겪었다. 군은 귀농인을 영입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막상 귀농한 뒤



추창근(66·왼쪽)·조희애(64)씨 부부는 정년 퇴임 4년 전부터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한 뒤 영암 한옥마을에서 6년차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눈에 물대는 것부터 수확까지 모든 절차에서 실수를 겪었던 추씨는 원주민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눠가며 농사법을 터득했다.

추씨의 농사일은 아직까지 큰 소득을 보지는 못했다. 추씨 부부는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 139만 원과 직장에 다닐 적 들이부는 개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적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대기업의 특성상 퇴직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시골에 집 짓고 웬만한 농사를 지으려면 3억 원 정도의 자금은 각오를 해야 해요. 광주의 아파트를 판 대금과 수십년 동안 들여놓은 적금, 지자체에서 지원한 3000만원으로 겨우 살림을 꾸릴 수 있었

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1남4녀 중 장남으로서 열심히 달려온 그는 귀농하면서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 추씨 부부는 주말이면 인근 월출산 올레길을 등반하고 군에서 진행하는 도예·수영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추씨는 시집을 내보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오랜 바람이었던 시작(詩作)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인생의 종착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진짜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야 하죠.”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집 앞마당 텃밭을 가꾸는 추창근씨 부부.

각국 보험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험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험기